

칠레, 선거정국 돌입 현황과 전망

이태혁 HK 연구교수
부산외국어대학교 중남미지역원

■ 주요 내용

- 리카르도 라고스 전 대통령과 살바도르 아옌데의 딸, 이사벨 아옌데가 대권 도전 출사표를 던짐.
- 칠레 전역에 345명 시장과 2,240명의 시의회 의원직 선출을 위한 선거전 돌입.
- 현 정부 및 집권여당의 부정부패 스캔들로 민심이 돌아선 상태이지만 현 집권여당연합체인 ‘새로운 다수’(Nueva Mayoría, NM)가 승리할 것으로 내다보고 있는 가운데 무소속 후보들의 약진이 전망됨.

KIEP **대한경제정책연구원**
Korea Institute for International Economic Policy

30147 세종특별자치시 시청대로 370
세종국책연구단지 경제정책동
TEL 044-414-1076 E-MAIL emerics@kiep.go.kr
http://www.emerics.org/ http://www.kiep.go.kr/

EMERiCs의 사전 동의 없이, 상업 상 또는 다른 목적으로 본 동향세미나의 내용을 전재하거나 제 3자에게 배포하는 것을 금합니다.
본 이슈분석에 대한 저작권 책임은 연구진 본인에게 있으며 KIEP 및 EMERiCs의 공식적인 입장을 대변하고 있지 않습니다.

1 2017 대권도전 양상과 이슈

☒ 리카르도 라고스 (Ricardo Lagos) 전 대통령, 지난 9월 2일 본인의 홈페이지에 대권 도전 의지 성명을 게재하며 출마를 공식 선언함.

- 2000~2006년간 제34대 대통령을 역임한 바 있는 리카르도 라고스 전 대통령은 ‘좌파개혁의 연속성을 위해’ 출사표를 던졌으며, 2017년 11월 치러지게 될 선거 후보자 중 최초로 공식적 출마를 선언함.
 - 리카르도 라고스 전 대통령은 2007년 UN 기후변화 특사로 한승주 전 국무총리와 함께 지속가능한 발전의 방향성 등에 대한 글로벌한 리더로 활동 중임.
 - 그는 집권 기간 중 자유무역 ‘전도사’ 역할을 하며 EU, 미국, 한국, 중국, 뉴질랜드, 싱가포르, 브루나이 등과 FTA를 체결함.

☒ 살바도르 아옌데 (Salvador Allende)의 딸, 이사벨 아옌데 부시 (Isabell Allende Bussi)는 쿠데타 발발 43주년 기념 전날(9월 10일), 대권에 도전할 것임을 공식적으로 밝힘.

- 이사벨 아옌데 부시는 세계 최초로 투표를 통해 국가수반에 당선된 사회주의자의 딸로, 쿠데타 발발 후 16년간 멕시코에서 정치적 망명생활을 하던 중 피노체트 정권 말기인 1989년 본국으로 돌아온 후, 적극적으로 정치에 참여함.
 - 칠레 상원 및 하원의장을 각각 역임한 바 있으며, 83년 역사의 칠레 사회당의 첫 여성 당수로 살바도르 아옌데의 정치적 유산과 ‘자본’을 전면에 내세우며 차기 대권에 출사표를 던짐.

☒ 우파진영의 수장, 세바스티안 삐네라 (Sebastián Piñera) 전 대통령 역시 대권 출마를 고려함.

- 2010~2014년간 제36대 대통령을 역임한 바 있는 삐네라 전 대통령은, 우파진영에서 가장 유력한 대권 후보임.
 - 우파정당 연합체인 Chile Vamos가 정치 비리 등으로 여론으로부터 몰매를 맞는 가운데, 피네라는 Chile Vamos 정치위원회에 소속이 되어 있지만 현재 당적은 무소속으로 내년 3월 중 대권 출마 여부에 관한 의사를 밝힐 것으로 전망함.
 - 그는 현재 공중파 방송 중의 하나인 칠레비전의 100%, 란(LAN)칠레 항공사 27%, 그리고 축구 클럽 Colo-Colo의 13% 지분을 소유하고 있는 칠레 대부호임.

☒ 여당연합체 내 대권 잠룡 등 다수의 전당대회 통해 대선 후보 단일화 전망

- 7개 중도 좌익세력으로 규합된 ‘새로운 다수’(Nueva Mayoría, NM)당은 계파 간 정책에 대한 ‘온도’차가 극명한 가운데 여당연합체의 최대 계파인 기독교민주당의 이그나시오 왈커(Ignacio

Walker) 상원의원 등이 차기 대권 출마를 고려함.

- 더욱이 무소속이지만 여당연합체 급진당의 지지를 받는 알레한드로 기예르(Allejandro Guillier) 상원의원, 그리고 호세 미겔 인술사(José Miguel Insulza) 미주기구(OAS) 전 사무총장도 잠정적 차기 대권 주자로 회자됨.

2 2016 지방선거 양상과 이슈

☐ 지난 8월 24일부터 345개 시의 시장과 2,240개의 시의회 의원직을 선출하게 될 지방선거의 캠페인이 공식적으로 시작함.

- 오는 10월 23일 실시될 제33차 지방선거는 총 345개 시의 시장과 2,240개의 시의회 의원직을 선출하게 됨.
 - 이번 지방선거에서는 시장 후보와 시의회 의원직을 두고 각각 1,200명, 13,000명이 출사표를 던짐.
 - 345개 별 시의 유권자 등록 인원수에 따라 각각 6명이나 8명, 혹은 10명의 시의회 의원을 선출하게 됨.
 - 지난 2012년 치러진 지방의회 선거에서 10명의 시의회 의원을 선출하는 시(市)는 17개였지만, 이번 지방의회 선거(2016년)에서는 22개 시로 증가함.

표 1. 유권자 등록 인원별 시의원 배정

(단위: 명)

유권자등록 인원별 시의원배정	2012	2016
10명 (시의원) 선출	17	22
8명 (시의원) 선출	43	41
6명 (시의원) 선출	285	282
시 (comunas)의 총수	345	345
시의원 (concejales)의 총수	2224	2240

자료 : 칠레선거관리위원회(SERVEL)

- 시의회 의원 선출인원수도 지난 선거에 비해 16명이 증가하였으며, 기존 10명의 시의원을 선출하는 비냐 델 마르, 산티아고시와 더불어, 이끼께, 라 세레나시 등이 새롭게 이번 지방선거에서 10명의 시의회 의원직을 선출하게 됨.
- 10월 30일에 지방선거를 실시할 예정이었으나, 한 주간 앞당긴 오는 10월 23일 선거가 치러질 예정임.

. 이는 10월 31일 ‘개신교의 날’과 11월 1일 ‘모든 성인 대축일’ 이틀이 법정 공휴일로 지정되어, 전주 주말부터 화요일까지 긴 연휴로 인한 선거 참여율 저조를 우려한 것임.

- 이번 지방선거는 1990년 문민정부 복귀 이래 가장 큰 규모가 될 것이며, 특이하게 무소속 후보자들이 대거 지방선거 참여함.
 - 여당과 야당 모두 연합정당체제인 가운데 집권여당인 Nueva Mayoría가 160개의 시 (municipality), 야당 연합정당인, Chile Vamos가 140개 지역을, 그리고 양쪽 어디에도 속해 있지 않은 시의 시장이 시정을 현재 운영하는 지역이 45개 시로 구성되어 있음.

☒ 산티아고시를 포함해 여권이 다수 지역에서 우위를 차지하고 있지만, 여당연합체 내부의 계파 간 갈등과 유권자들의 정치 불신이 지방선거의 변수로 전망

- 칠레 일간지 라 나시온 (La nación)에 따르면, 까롤리나 토하 (Carolina Tohá) 현 산티아고 시장의 재선이 유력하지만 중도좌파 연합 간 계파싸움으로 Chile Vamos, 우파정당 연합체의 펠리페 알레산드리 (Felipe Alessandri) 후보¹⁾의 약진이 전망됨.
 - 한편, 까롤리나 토하 현 산티아고 시장은 민주당(PPD) 당수 및 리카르도 까를로스 바첼렛 정부에서 주요 요직을 섭렵하며 정치적 리더십을 발휘함.
 - 더욱이 까롤리나 토하는 지난 12년간 우파의 텃밭이었던 산티아고시에서 2012년 지방선거를 승리로 견인함.

3 시사점 및 선거관전 포인트

☒ 현 정부 및 집권여당의 부정부패 스캔들로 민심이 돌아선 가운데, 현 집권여당연합체인 Nueva Mayoría는 2017년 대선과 2016년 지방선거에서 승리할 것으로 전망되지만, 여론이 호의적이지만은 않음.

- 이코노미스트에 따르면, 10월 지방선거 결과에 따라 현 정부의 개혁정책이 지속될 것인지 여부에 동력 역할을 할 것이며, 2017년 11월에 치러질 대선 및 국회의원 선거에 방향타 역할을 할 것으로 분석
- 특히, 최근 실시된 여론 조사에 응답한 유권자 중 62%가 아직 어떠한 대선 후보자도 지지하지 않는다고 밝힘.
- 더욱이, 리카르도 라고스 전 대통령은 대권 도전 의사를 초기에 밝힘으로 지지기반 세력 규합 및

1) 현 산티아고시 시의회 의원

외연 확대를 추구하고 있음.

- 그러나 젊은 유권자들은 기존 정치인들에게 비호감이며, 여론조사 결과, 78세 연령의 전 대통령이 변화를 대변하며 대표하는 인사가 되는 것을 꺼리는 것으로 확인됨.
 - 또한, Cfk Adimark²⁾에서는 9월 현재 여론조사 응답자 가운데 차기 대통령으로 피네라를 18% 그리고 라고스를 5% 지지하는 것으로 조사되었음.

☒ 대선 경선보다는 중도좌파 현 여당 연합(Nueva Mayoría) 내에서 후보 단일화로 추대하는 모양새가 필요함.

- 이사벨 아옌데 현 사회당 당수는, 칠레 최대 일간지 중 하나인 라 페르세라(La Tercera)와의 최근 인터뷰에서 “같은 세상을 대표하는 나와 리카르도 라고스 전 대통령이 당내 대선 후보 경선을 한다는 것은 ‘기괴하다’.”(extraño)고 의사를 밝힘.
 - 이사벨 아옌데를 포함해 알레한드로 기예를 상원의원과 호세 미겔 인술사 미주기구 전 사무총장 등 대권 잠룡들이 중도좌파 연합 내에서 계파 간 이해관계로 비화될 수 있는 만큼, 여당 연합 내 중진들의 리더십이 필요함.
 - 더욱이, 7개의 중도 좌익세력으로 규합된 현 여당 연합 가운데 ‘좌파시민당’과 ‘사회확장운동당’³⁾이 10월 지방선거 이후 여당연합체에서 분리되어 탈당 의사를 밝힌 만큼 좌파 연합세력 내에서의 연대성 확보가 필요함.

☒ 현 정부의 ‘총체적’ 불만, 그리고 이를 제도적인 틀⁴⁾로 활용할 유권자의 ‘정치성’에 기인해 10월 지방선거 투표율은 저조할 것으로 전망함.

- 유권자들의 정당정치에 대한 불만과 불신이 팽배한 가운데 선거 시스템 즉, 제도적 변화가 10월 지방선거 투표율 저조를 견인할 것으로 전망함.
 - 지난 지방선거 이전까지는 유권자 등록을 한 사람만 선거에 참여할 수 있었음.
 - 아울러, 유권자 등록을 한 사람은 투표가 의무이며, 투표에 참여하지 않을시 200달러 정도의 벌금이 부과됨.
- 하지만 지난 지방선거부터 유권자 등록은 자동으로 진행되고, 투표의무제는 폐지되어 유권자의 수가 산술적으로는 증가했지만 지난 지방선거 시 유권자의 투표율이 오히려 감소하였음.
- 현 정부, 여당, 야당 정치인들에 대한 칠레 국민의 총체적 불만으로 정치에 대한 불신이 투표율로 환산될 전망이다.

2) 칠레의 여론기관

3) 각각 2명의 국회의원이 소속됨

4) 변경된 선거 시스템

- 가령, 현 바첼렛 행정부는 1990년 문민정부 복귀 이래 9월 현재 15%라는 최저치인, 최악의 지지도 성적표를 받음. 양당 정치인들에 대한 지지도 역시 10%임.
- 현 집권여당 연합체인 Nueva Mayoría가 각종 지표에서 야권연합체 Chile Vamos에 상대적으로 우위에 있지만 이 또한 근소한 차이이며, 양대 정당 간의 정치적 비호감에 따른 반사이익으로 무소속 후보들의 약진이 전망됨. **EMERiCs**

출처

Economist Intelligence Unit (2016년 9월 30일자 자료분), Servicio Electoral (칠레 선거관리 위원회), 주 칠레대사관 및 Guardian 그리고 La Tercera등 국내외 언론 보도자료